

#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 ‘申’ 세경 자청비의 의미 —

정인혁\*

## 〈차례〉

1. 서론
2. 열등한 자청비의 주도적 행위
3. 자기희생을 통한 조화와 재생의 원리
4. 중세경의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세경본풀이>는 주인공 자청비가 농경신인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서사무가이다. 세경신은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의 3신이 있는데 주인공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좌정한다. 본고는 왜 주인공인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좌정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세경본풀이>의 세계관을 살피고자 하였다.

주인공 자청비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서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은 자청비이다. 생물물질적이거나 가족혈연적 질서 구조에서, 열등한 자청비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인물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선이라는 윤리적 가치의 실천 때문이다.

그런데 자청비에 의해 실현되는 윤리적 가치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청비의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용서’에 있다. 용서는 악한 존재이든 선하지 않은 존재이

\*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 연구원, HK연구교수

든지 간에 타자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필연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한 존재를 벌하고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존재들까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타자를 용서하는 것은 심지어 악한 것도 세계의 일부로 인정하는 조화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간다.

천상적인 존재와 지상적인 존재, 귀한 존재와 천한 존재, 심지어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천상과 지상’, ‘귀와 천’, ‘선과 악’ 같은 의미 층위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대립적인 자질들이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세계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천상적 질서 또는 존귀함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계 구성 요소들의 조화를 통한 균형감이다. ‘中’세경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의 조화로운 세계 구현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핵심어: <세경본풀이>, 자청비, 세경신, 윤리적 가치, 조화의 세계관, 용서

## 1. 서론

<세경본풀이>는 자청비라는 한 여성인물이 농경신인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서사무가이다. 그동안 <세경본풀이>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그만큼 이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왔다. 구조 분석을 통해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의미<sup>1)</sup>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한국의 농경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 자리매김 되었다.<sup>2)</sup> <세경본풀이>가 속한 무속신화 고유의 세계관을 전제로 <세경본풀이>의 창작방법과 서사 원리를 검출함으로써 <세경본풀이>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도 연구되었다.<sup>3)</sup> <세경본풀이>를

1) 김화경, 「세경 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Vol.8, No.3, 일지사, 1982.

2)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韓國民俗學』 25, 민속학회, 1993.

포함하여 여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제주도 서사무가 세 편을 대상으로 서사의 구조도 논의되었다.<sup>4)</sup> 자청비라는 여성 주인공에 집중하여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겪는 수난을 당대 여성들의 문제로 바라본 연구<sup>5)</sup>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당대 여성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려낸 환상문학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6)</sup>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기원을 밝혀주는 서사무가로서 여성 자청비가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신화적 영웅담의 구조에 당대 여성들의 고난어린 현실상이 반영된 서사로 이해된다.

<세경본풀이> 연구에서 주인공 자청비 연구의 중요성은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무속신화의 측면에서나 어떤 인물이 겪거나 초래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서사 텍스트의 측면에서나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랜 세월 농사가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우리나라에서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신으로 좌정하는 인물이 당대의 상황에서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세인 여성인데다 이 여성인물은 신으로 좌정하는 일반적인 신화 속 인물들보다 개성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다. 이러한 자청비라는 인물에 대해 대체로 연구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 
- 3) 신태수, 「<세경본풀이>의 世界觀의 基底와 談論 構造」, 『語文學』 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 4)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韓國言語文學』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5) 이와 관련한 논의들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다.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집, 한중인문학회, 2007.
  - 6) 오정미는 <세경본풀이>는 '기존의 서사와는 다르게 당대의 관념을 뛰어넘어 여성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연애와 이상적인 결연을 그리고 이상적인 헤어짐을 형상화한 이야기'로서 '현실의 틀을 깨고 저 너머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환상을 꿈꾸게 할 수 있는 환상문학'이라 정의했다.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200~201면.

하나의 자연의 생명력이 여성의 생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신화적 해석에 입각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여신의 형상화에 당대 여성의 어려운 현실과 이상향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은 신화라는 상징체계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세경본풀이>라는 특정 텍스트의 차원에서 보면 자칭비라는 인물과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세경본풀이>의 개성이 신화라는 상위 체계 속에서 일반화되어버릴 수 있다. 자칭비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는 일반적인 신화에서 보여주는 인간을 초월하는 신성성을 지닌 인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화론의 차원에서 <세경본풀이>를 해석하는 것은 <세경본풀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sup>7)</sup>

신성한 세경신과 그렇지 못한 자칭비 사이의 간극에서 자칭비가 신성한 신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점에서는 다른 제주도 무가의 여성 주인공의 형상화와 마찬가지로 하더라도<sup>8)</sup> 자칭비라는 인물이 다른 여성 주인공들에 비해 갖

7) 이에 대하여 신태수는 신성한 신의 내력을 설명해주는 본풀이의 소위 ‘이념적인 층위’와 인물의 층위에서 자칭비의 형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세경본풀이>도 인물론에 국한되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속 신화의 창작 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경도되어 텍스트의 층위와 텍스트 해석의 층위를 혼동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신이 된 자칭비, 곧 세경신으로서의 자칭비를 상정하고 설명함으로써 자칭비가 세경신으로의 좌정을 목표로 문도령을 찾아다니고 하였는데, 이는 해석자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가 무속신화의 범주에 속한 작품이고 본풀이가 신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한 서사텍스트이기에 그러한 보편성을 개별 텍스트 이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온당하다. 하지만 그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개별 텍스트의 의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세경본풀이>의 世界觀的 基底와 談論 構造」, 『語文學』 91, 2006 참조.

8) 심치열은 <세경본풀이>와 함께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를 통해 동기 부여로서의 추방담-능력 실현으로서의 시련담-업무 완수를 통한 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세 단계로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신들의 좌정 내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이들 세 서사라고 하였다. 자칭비가 추방과 시련을 겪고 신으로 좌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왜 중세경으로 좌정하는가

는 독특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 지점에 당대 여성들의 어려운 현실과 그 현실을 딛고 이루려는 이상적인 바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텍스트 상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인물, 심지어 자청비가 극복해야 할 대상인 적대적인 인물도 세경신으로 좌정한다는 점과 자청비가 주인공임에도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 가운데 중세경에 좌정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세경본풀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체 및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의식세계와 자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내포’하고 ‘무속신앙 자체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진 사회의 이면을 반영’하는 것,<sup>9)</sup> 더 나아가 여성의 환상문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면, 가부장적 아버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의 질서를 수용하고, 문도령을 위해 희생하며 정수남을 인정하고, 상세경이 아닌 중세경에 좌정하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당대 질서 체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원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이 농경 기술 습득에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곡물 및 농경 기술이 갖는 문화적 위상이 남성이나 남성신에게 집중되는 ‘남성 중심사회의 권력화’가 상징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하였다.<sup>10)</sup>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 원래 세경신이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가 현재의 <세경본풀이>라면 인물 층위에서 드러나는 덜 신성한 자청비의 인물 형상은 왜 더 신성한 존재로 변개되어 형상화되지 않았는지, 또 문도령이 상세경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지 않았는지 하는 등의 의문이 남는다.<sup>11)</sup>

---

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심치열, 앞의 글 참조.

9) 심치열, 같은 글, 235면.

10) 최원오, 앞의 글, 389~92면.

11) 자청비의 서사, 곧 <세경본풀이>는 굿의 문맥에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굿이라는 연행 또는 전승 상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독립적으

이 논란의 핵심에는 왜 자청비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면서도 ‘중세경’으로 좌정하는가 라는 물음이 있다. 본풀이가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또 일반적으로 서사텍스트가 주인공이 겪거나 초래하는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인 자청비가 왜 중세경인가 하는 문제는 <세경본풀이>의 주제와 그 주제를 형성하는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청비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기에 세경신이 되는지, 또 왜 중세경으로 좌정하게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세경본풀이>의 성격에 보다 접근하는 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기간의 업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텍스트 자체에 주목하되 특히 주인공 자청비가 왜 중세경인가, 다시 말해 중세경 자청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중세경 자청비의 내력을 설명하는 <세경본풀이>가 구현하는 세계관을 재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로 존재하는 개별 서사가 아니라 곳이라는 연행의 맥락에서 전승·유지되어온 것이 바로 본풀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송자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연행자의 텍스트에 대한 태도, 나아가 연행자가 속한 시대 및 집단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같은 <세경본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연행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행의 맥락과 구송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각 본의 차이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세경본풀이>가 이러한 연행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재현의 양상을 드러내는 구술적 텍스트이면서도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여, 비록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양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세경본풀이>를 <세경본풀이>답게 하는 것, 곧 그의 세계관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송자에 따른 텍스트 변이의 양상을 살피려면 먼저 비교의 준거, 곧 변하지 않는 상수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 명의 세경신 가운데 왜 주인공 자청비가 중세경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 2. 열등한 자청비의 주도적 행위

본 장에서는 먼저 행위자적 역할<sup>12)</sup>을 중심으로 <세경본풀이>의 표층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층 구조는 이야기에서 등장인물과 그 행위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층위를 통해 드러난다. 인물의 ‘행위’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기능을 하는 바, 자청비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먼저 <세경본풀이>의 이야기를 몇 개의 문형으로 정리한다.

<世經本풀이><sup>13)</sup>

- 1 큰 부자인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다.
- 2 은증절 화주승이 수록재를 드리면 자손을 볼 수 있다고 하다.
- 3 김진국 대감이 열심히 준비했으나 백 근 중 한 근이 모자라다.
- 4 김진국 대감 부부가 딸을 얻다.
- 5 자청비가 정술택이의 이야기를 듣고 빨래를 나갔다가 문도령을 만나  
다.
- 6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글공부를 떠나다.
- 7 자청비와 문도령이 시합을 하여 자청비가 이기다.
- 8 자청비와 문도령이 결연하다.
- 9 문도령이 천상으로 올라가며 박씨가 열어 딸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다.
- 10 자청비가 기다렸으나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다.

12) 각 인물들은 인물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인물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행위 양상을 보이지만 때로는 본질적인 특성과 다른 양상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적 역할’은 인물의 ‘본질적 특성’과 ‘행위’를 일컫는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57면.

13)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196~258면.

- 11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다.
- 12 정수남은 게으름을 피우다 자청비에게 문도령이 선녀들과 놀고 있  
더라고 거짓말하다.
- 13 자청비가 정수남을 따라 문도령을 보러 가다.
- 14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탈하려 하다.
- 15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다.
- 16 정수남이 죽은 것을 안 김진국 대감이 자청비를 나무라며 벌을 내  
리다.
- 17 집을 떠난 자청비가 아이들이 잡은 봉새를 얻어 황세곤간의 집에  
던져두고 들어가다.
- 18 황세곤간이 흥함을 주는 봉새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다.
- 19 자청비가 정수남의 혼을 달랜다.
- 20 자청비가 황세곤간의 셋째 딸과 혼인한다.
- 21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초를 얻는다.
- 22 자청비가 과거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하고 환생초로 정수남을 살린  
다.
- 23 자청비가 정수남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 24 김진국 대감이 요망하다며 자청비를 쫓아내다.
- 25 자청비가 떠돌다가 주모할미의 집에 머물게 되다.
- 26 자청비가 문도령과 서수왕 아기의 혼례 시에 쓸 비단을 짜다.
- 27 문도령이 비단을 보고 자청비를 만나고자 하다.
- 28 자청비가 찾아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다.
- 29 자청비가 주모할미의 집에서 쫓겨나다.
- 30 자청비가 중이 되어 떠돌다가 하늘 옥황 문곡성 상제의 궁녀와 시  
녀를 만나다.
- 31 자청비가 하늘 옥황 문곡성 상제의 궁녀와 시녀들을 도와주고 하늘  
옥황 문곡성으로 올라가다.
- 32 자청비가 문도령과 재회하다.
- 33 자청비가 문도령을 통해 하늘 옥황 문곡성 상제에게 문도령과의 혼  
례를 청하다.
- 34 자청비가 하늘 옥황 문곡성 상제의 시험을 받다.

35 자청비가 하늘 옥황 문곡성 상제의 시험을 통과하고 문도령과 혼인한다.

36 궁안에서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보쌌한다는 소문이 있다.

37 자청비가 문도령을 황세곤간의 집에서 셋째딸과 함께 있다 돌아오라고 하다.

38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문도령을 죽이려는 음모를 피할 계책을 알려준다.

39 문도령이 독약을 먹고 죽다.

40 자청비가 계책을 써서 보쌌하러 온 군졸들을 물리치다.

41 자청비가 환생꽃을 따다 문도령을 살리다.

42 자청비가 인세의 변란을 막고 오곡 열두시만곡을 받다.

43 자청비가 문도령을 거느리고 인간에 내려오다.

44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밥을 주지 않은 곳은 흉년, 밥을 준 곳은 풍년을 이루게 하다.

46 자청비가 잇은 씨를 하늘 옥황 문곡성에 가서 타 오다 늦어져 메밀은 파종 시기가 느려지다.

47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 문도령은 상세경이 되다.

1에 등장하는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은 지상적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두 사람은 유기체물이 많고, 전답이 많은데다 노비를 많이 갖추어 잘 살았지만, 나이 늦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은중절 중으로부터 자식 낳을 방도를 전해 듣는다. 2에서 김진국 대감 내외는 자식을 갖지 못한 결핍된 존재이며 자식 낳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반면 은중절의 중은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김진국 대감과 중은 <알지 못하는 자/아는 자>로 대립되며 또한 <알게 되는 자>와 <알려주는 자>의 행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3에서 김진국 대감 내외는 수록재에 쓰일 재물을 백 근을 채우지 못한다. 백 근을 채웠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백 근에서 한 근이 모자랐기에 4에서처럼 딸을 낳게 된다. 자청비가 태어나게 된 것은 은중절 중이 말한 바와 같이 백 근을 채우지 못한 때문이다.

5와 6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청비는 김진국 대감의 딸로서 지상적 존재인 반면, 문도령은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이므로 천상적 존재이다. 동시에 지상으로 내려와 글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비지상적 존재이다.

한편 이러한 생물물질적 속성을 달리 하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5에서 자청비가 정술택이의 거짓말을 듣고 생긴 호기심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남동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여자가 공부하여 무엇을 하느냐는 김진국 대감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자신 밖에 없으니 제를 지낼 때 축지방이라도 쓰려면 글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한다.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부모 간의 행위자적 역할은 <주도하는 자>와 <주도되는 자>, <설득하는 자>와 <설득당하는 자>로 대립된다. 이러한 자청비와 문도령의 행위자적 역할 관계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글공부를 하는 동안(7)이나 두 사람의 결연(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다.

9는 문도령이 날이 밝아 자청비와 헤어지게 되는 부분이다. 문도령은 박씨 하나를 주며 박이 열어 따게 되면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10에서 박이 열어 딸 때가 되지만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도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문도령은 <약속을 어기는 자>이다.

11에서 자청비와 정수남은 모두 지상적 존재이만 자청비는 주인집 딸이고 정수남은 종이다. 따라서 <주인/종>의 관계이며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나무해울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자청비와 정수남의 행위자적 역할은 <시키는 자/시킴을 당하는 자>로 대립된다.

12에서 정수남은 게으름을 피우다 자청비에게 핀잔 들을 것을 걱정하여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은 13에서 14로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건강하고 씩씩하여 문도령을 비롯하여 삼천 선비와의 경쟁에서 이긴 자청비를 겁탈하기 위

해 정수남은 자청비가 탄 말 안장에 소라껍질을 넣어 자청비를 떨어 뜨리고 인적이 드문 연못까지 뛰어오게 하고 소금을 잔뜩 넣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청비의 힘을 소진케 한다. 정수남은 <죽이는 자>이고 자청비는 <숙는 자>이며, 정수남은 <함정에 빠뜨리는 자>이고 자청비는 <함정에 빠지는 자>의 행위자적 역할 대립을 보인다.

15에서 자청비는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기지를 발휘하여 죽인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이는 자>이고 정수남은 <죽는 자>이다. 죽은 정수남의 혼령은 18에서 서천꽃밭에 흉험을 안겨주는 봉새로 화한다. 봉새로 화한 정수남은 이제 <비지상적 존재>가 된다.

16에서 김진국 대감은 종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청비에게 벌을 준다. 김진국 대감은 <벌주는 자>이고 자청비는 <벌받는 자>이다. 결국 17에서 자청비는 아버지의 벌을 완수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 바, 김진국 대감과 자청비의 행위자적 역할은 <내쫓는 자/쫓겨난 자>로 대립된다.

17에서 23까지는 자청비를 겁탈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정수남의 원혼인 봉새가 황세곤간의 집에 거하며 흉험에 들게 하는 사건을 자청비가 해결하는 과정이다. 정수남은 자청비를 겁탈하려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인데, 죽임을 당한 뒤에는 봉새로 화하여 흉험을 일으킴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상황을 만든다. 반면에 자청비는 정수남의 원혼을 달래어 흉험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정수남은 <갈등을 유발하는 자>, <문제를 만드는 자>인 반면 자청비는 <갈등을 해소하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22에서 자청비는 황세곤간의 서천꽃밭에서 환생초를 얻어 죽은 정수남을 살린다. 자청비는 <살리는 자>이며 정수남은 <살게 된 자>이다. 정수남이 죽은 것은 자청비를 겁하려한 때문이므로 정수남을 살렸다는 것은 자청비가 정수남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청비는 <용서하는 자>이고 정수남은 <용서받는 자>가 된다. 동시에 자

청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해하려는 정수남과 함께 공존하기를 각오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에서 김진국 대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요망한 것이라며 자청비를 다시 내쫓는다. 김진국 대감은 <내쫓는 자>이며 자청비는 <쫓겨난 자>이다.

25에서 29는 쫓겨난 자청비가 주모할미의 집에서 거하면서 다시 문도령과 재회할 기회를 얻게 되는 부분이다. 문도령과 서수왕 아기의 혼례에 쓰일 비단임을 알고 자청비는 자신의 이름을 수놓는다. 이를 본 문도령은 자청비와 만날 것을 알리고 찾아온다. 그동안 소식도 없던 문도령이 오자 자청비는 반갑고 기쁜 김에 문도령에게 창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고, 문도령이 손가락을 넣자 바늘로 찌른다. 문도령은 인간 세상은 사람 다닐 곳이 아니라며 되돌아간다. 서로 만나길 고대하던 두 인물이 얇은 종이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천상과 지상의 공간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두 인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회’일 것인데, 이 두 인물 간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재회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모두 자청비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인물 자청비와 문도령은 각각 <주도하는 자>와 <주도되는 자>로 대립된다. 한편, 자청비의 행위에 대해 문도령은 인간 세상이 사람 다닐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문도령이 <비지상적 존재>임을 알려준다. 동시에 자청비는 <지상적 존재>인 것이다. 자청비는 너무도 인간적인 존재이다.

30에서 다시 쫓겨난 자청비는 종이 되는데, 기존의 신분에 비춰보면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이 되어 시주를 다니던 자청비는 문도령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 난처해하고 있던 선녀들을 도와준다. 선녀들은 <천상적 존재>이지만 자청비와의 행위자적 역할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자>이다. 자청비는 <도움을 주는 자>의 행위자적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선녀들은 지상적 존재, 그것도 종이라는 비천한 존재인 자청비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흔히 천상적 존재에

게 기대하는 초월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31에서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갈 수 없었던 문도령의 천상계로 자청비를 데려가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천상적 존재>이다.

32에서 문도령과 재회한 자청비는 33에서 문도령으로 하여금 아버지 문곡성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한다. 자청비는 <주도하는 자>이고 문도령은 <주도되는 자>이다.

34에서 결국 하늘 옥황 문곡성은 이미 혼처로 정했던 서수왕아기와 자청비를 시험한다. 하늘 옥황 문곡성은 천상적 존재이며 자청비와의 관계에서 <시험하는 자>이며 문도령의 베필을 <결정하는 자>이다. 반면 자청비는 <시험받는 자>이고 <결정에 따르는 자>이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옥황의 혼사를 되돌리는 일은 자청비의 주도적인 행위의 의한 것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에서 문도령은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자>인 반면에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결연을 위해 하늘 옥황 문곡성의 시험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고 피를 흘린다. 자청비는 <희생하는 자>이다.

35에서 자청비는 천상적 존재인 서수왕아기와와의 경쟁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여 문도령과 결혼하게 된다. 서수왕아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인 반면 자청비는 <시험을 통과한 자>이고 또한 서수왕아기는 <패자>인 반면 자청비는 <승자>이다.

인간 자청비는 홀로 힘으로 천상에 오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천상적 존재인 선녀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지상적 존재로서는 오를 수 없는 천상에 올라온 데다 천상적 존재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지상적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지상적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 옥황 문곡성이나 문도령과 같은 천상적 존재도 아니므로 <비천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6에서 41까지의 서사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은 자청비이다. 자청비는 <주도하는 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계책에 따르다가 방심한 나머지 죽고 만다. 자청비는 다시 환생초로 문도령을 살린다. 자청비는 <살리는 자>이고 문도령은 <살게 된 자>이다. 37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으로 하여금 위기를 피하여 황세곤간의 셋째 딸과 보름까지만 지내다 돌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문도령은 기한을 넘겨 돌아오지 않는다. 9에서처럼 문도령은 <약속을 어기는 자>이다.

42에서 자청비는 인간 세상에 일어난 변란을 해결하고 오곡을 요구하여 받는다. 자청비는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자>이다.

43에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문도령은 <천상적 존재>이고 문도령의 아내인 자청비는 <비지상적 존재>이다. 자청비는 44에서 유리걸식하는 정수남에게 밥을 주는 사람의 밭에는 풍년이 들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밭에는 흉년이 들게 한다. 풍흉을 관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을 넘어선 초월성을 보여주며 35에서 세경이라는 농경신 가운데 중세경으로 좌정하게 된다.

### 3. 자기희생을 통한 조화와 재생의 원리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서술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 인물로부터 서술할 만한 의미를 추출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인물에게 부여할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곧 한 서사텍스트에서 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를 살피는 것은 단지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텍스트를 생산하게 한 문화의 의미 체계를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 의미 체계를 살피는 것은 곧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수행한 표층 구조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경

본풀이>의 심층 구조의 의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층 구조의 의미 체계는 인물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이야기로 실현된다. 따라서 표층 구조에서 체계화한 인물의 행위는 그 텍스트의 의미 체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심층 구조의 의미 체계는 서사 텍스트를 생산하는 맥락이다.<sup>14)</sup> 의미 체계는 서사텍스트의 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때 텍스트는 단순히 읽는 대상이 아니라 읽는 이의 인식을 드러내는 인식론적 텍스트이다. 인식론적 텍스트는 보다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보편적 가치들의 체계를 드러낸다. <세경본풀이>의 의미 체계는 <세경본풀이>라는 서사텍스트를 가능케 한 보편적 가치들에 의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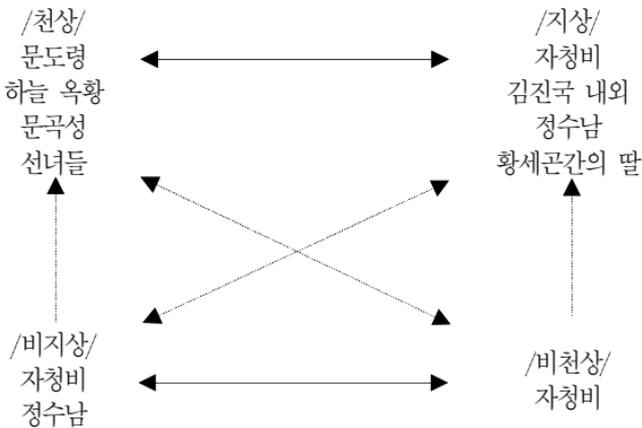
먼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sup>15)</sup>에서 보면 자청비를 비롯한 김진국 대감 내외, 황세곤간과 그의 딸, 정술데기와 그의 아들 정수남, 문도령, 하늘 옥황 문곡성, 선녀들은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sup>16)</sup>

14) 예를 들어, 선이 긍정되고 악이 부정되는 이야기의 심층에는 선악의 대립 혹은 악의 부정과 선의 긍정이라는 가치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표층 구조에서 ‘(선한) 주체가 (악한) 적대자를 물리치고 대상을 획득하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송효섭, 『설화의 이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11~12면 참조. 괄호 안의 것은 필자.

15) 인물의 본질적 특성은 생물물질적 속성, 정치사회적 속성, 가족 혹은 친족 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 윤리적 가치 기준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각 범주는 텍스트의 의미를 읽어내기 위한 기준이므로 다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로 일반화된다.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란 그 존재가 천상적 존재/지상적 존재, 신/인간 혹은 인간/동물과 같은 양항 대립이 드러나는 층위를 말한다.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는 다스리는 자/다스림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르침을 받는 자, 왕/백성과 같은 대립이 드러나는 층위이다. 또한 인물들은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속에서 본질적 특성을 드러낸다. 부/자, 모/자, 부/부 관계 등이다. 이 여러 의미 층위들이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텍스트의 의미 체계를 이룬다. 송효섭(1999) 앞의 책, 166~168면.

16) 황세곤간의 서천꽃밭이 저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서천꽃밭을 저승으로 보고 자청비가 죽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저승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온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청비의 행위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도 있고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이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화적 해석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서사 전개 상 서천꽃밭이라는 특정 공간이 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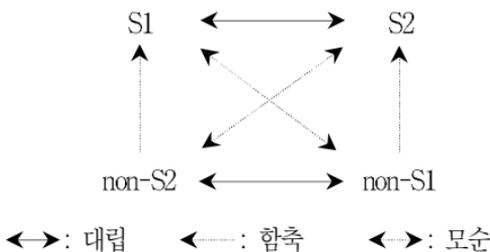
로 대립된다. 그런데 자청비는 다른 지상적 인물들과 달리 천상에도 올라가고 또 천상적 존재의 아내가 되므로 비지상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천상적 존재는 아니므로 비천상적 존재이다. 이들 간의 관계를 기호학적 정방향<sup>17)</sup>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은 3년 간 한 방에서 지내면서도 자청비가 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청비와의 결혼을 주도

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천상 및 인간 세상(지상)과 구별되어 따로 ‘저승’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될 만큼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황세곤간의 공간도 천상과 구별되는 ‘지상’에 속하는 것으로 다룬다.

17) 기호학적 정방향은 이야기 속에 드러날 의미의 구성 요소들을 지배하는 논리체계이다. 기호학적 정방향은 항목들 사이의 정태적 관계 및 항목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 작용을 드러낸다. 먼저 항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학적 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할 방책도 없고 자신을 해하고 자청비를 납치하려는 음모를 분쇄할 능력도 없다.

1) 부모님이 알카 허여 즈청빌 문도령 방에 드러놓고, 낮의는 펥풍 뒷강에 금추우곡 밤이는 펥풍 뺏기 내여낭 만단정화 일를 때

...(중략)...

즈청비도 그 눈칠 채완,

“문도령님아, 간밤에 부탁하던 말 부모님아피 강 일러보옵소서.”

“어서 걸랑 그리하자.”

문도령이 즈청비 근는 대로 부모님아피 가,<sup>18)</sup>

2) 즈청비하고 문도령은 백년이례를 맞아 살 때, 옥항에서 착흐덴 소리가 동서으로 나고 보니, 흐를날은 궁안에서 문도령을 죽여두곡 즈청비를 푸대썸 흐기로 결정될 때 즈청비가 말을 흐뉘,

“낭군님아, 낭군님아, 알엿 므을 서천꽃밭 꽃생인집 말쑤똥아기신디 사위들어서메 나 데리 설운 낭군이 갑서. 어찌 얼굴이 전과 꺾지 못흐나 흐건 과걸흐젠 흐 게 간장 타고 속이 타 그 전 얼굴과 꺾지 못흐우텡 흡서,<sup>19)</sup>

1)의 인용문은 힘들게 재회한 자청비가 문도령으로 하여금 서수왕아기와 결혼할 수 없음을 하늘 옥황 문곡성에게 밝히도록 하는 장면이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숨기는데 급급한 반면, 부부가 되어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은 천상적 존재는 자청비이다. 2)는 결혼한 자청비와 문도령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납치하려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청비가 문도령으로 하여금 황세곤간의 집에서 몸을 피하도록 하는 장면이다. 역시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청비에

18) 현용준·한승환 역주, 앞의 책, 246면.

19) 같은 책, 250면.

의해 주도되고 있다. 심지어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은 자청비에 의해 환생까지 하는 것이다.

하늘 옥황 문곡성도 천상적 존재이지만 지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천상적 존재인 선녀들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 따라서 천상적 존재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또 지상 세계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에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서사가 진행된다. 즉 천상과 지상의 우열 관계가 갈등 해소와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상/지상>으로 대립되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는 <세경본풀이>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의미 체계가 아니다.

다음으로 각 인물들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자청비와 김진국 대감은 <부/녀>의 관계, 자청비와 문도령은 <부/부>의 관계이다. 사회정치적 의미 층위에서 김진국 대감, 자청비와 정술택이와 정수남은 <주인/종>의 관계이며 <귀/천>으로 대립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혈연적	사회정치적
김진국 대감/중 김진국 대감/자청비 문도령/자청비 자청비/정수남 선녀/(중)자청비	부/녀 부/부 부/부	귀/천  주/종, 귀/천 귀/천

가족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김진국 대감은 자청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각각 김진국 대감이다.

다음은 자청비가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죽이게 된 일에 대하여 이야기는 장면이다.

아방국 어명국 들어가 부모님에 문답하되,  
 “종이 아갑수가? 즈식이 아갑수가?”  
 “아명 종이 아까운덜사 즈식보다 더 아갑겠느냐?”  
 “계건 아바님 어머님아, 정수남의 흐는 행실이 고약하여 굴미굴산 들  
 안 간 죽여두고 왔수다”  
 “이 년아, 저 년아, 남도 났저. 지집년이 사름을 죽이다니 너넨은 놈의  
 집의 씨택가민 그만이여, 그 종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뎡은  
 하여 준다.”<sup>20)</sup>

위 인용문의 부녀 간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 우위에 있는 김진국 대감은 부녀간의 관계보다는 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가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가 실현되려면 인용문의 언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나쁜 종보다는 시집가버릴 딸이 더 중히 여겨져야 한다.

한편 실제로 그러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의해 제기된 노동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청비이다. 자청비는 아버지의 아버지답지 않은 문제 제기에 스스로 종의 일을 대신하겠다고 답하며,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자신을 겁탈하려던 정수남을 되살려 데리고 온다. 부녀간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 열세에 있는 자청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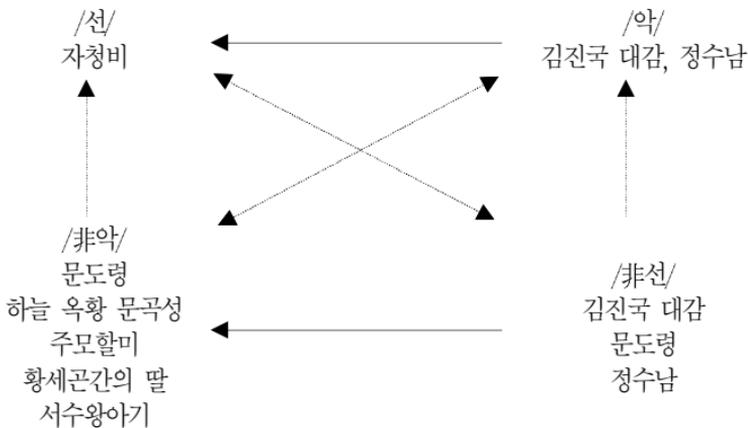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는 지아비 문도령은 자신과 아내인 자청비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해결하지 못한다. 문도령과 자청비 부부를 샘하는 무리들을 지혜롭고 대담하게 해결함으로써 부부를 지키는 것은 자청비이다. 부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위계의 전도는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가 <세경본풀이>의 서사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사회정치적 의미 층위에서도 <귀/천>의 우열이 텍스트 상에서 온

20) 앞의 책, 232~34면

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김진국 대감은 아이를 낳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천한 중은 아는 자로서 김진국 대감 부부의 결핍을 해결해 주며, 주인의 신분인 자청비는 정술택이와 정수남에게 속임을 당하며 심지어 정수남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물들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의미 층위 가운데 윤리 가치적 의미 층위를 살펴보자. 먼저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의 항목들 간 기호학적 정방형에 인물들을 분포시키면 다음과 같다.



김진국 대감의 이러한 행위는 딸 보다는 노동력을 갖춘 남자종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정수남은 게으른 인물이다.

흐를날은 즈청비가 상다락 올라사 남창문을 읍안 보니, 문도령은 안오 시고 수벨감 수장남 굴미굴산 아여산 노주봉산 짚은 곳 들어간 절로 죽은 삭달남 주워 비여 쉼질메 들질메예 주워 시꺼쉼머리 앞니망엔 신달리 뒷니망엔 아진베기 꼽아놓고 어러령 떠러령 오는 게 보기 좋고 구경홀 만흔다. 올레 뺏기 나오네 구경흐젠 흐단 보난, 정이엇인정수남인 비근다리궤치록 먹어놓고 상눌굽 밑에 앉아 입싸리 뉘와놓고 작박궤든 손콥으로 바짓허리 웨싸네 훤은 니 즘진 니 죽염시난<sup>21)</sup>

21) 현용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214~6면.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정수남이 죽었다고 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보다는 그런 이유로도 자식을 내칠 수 있는 폭력적 가부장제적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진국 대감은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부/녀>의 가족혈연적 관계에서 가부장제적 체계에서 부는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로서 딸을 내치는 것은 부정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윤리가치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이다. 부녀 관계에서 김진국 대감의 악함은 정수남을 환생시켜 데리고 돌아온 자청비에게 요망하다며 집을 나가라는 행위에서 재차 확인된다. 김진국 대감은 부정을 저버리는 <악>한 인물이다. 그러나 자청비가 딸이라고 하여 애초부터 부정했던 것은 아니므로<sup>22)</sup> 절대적인 악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선/에도 속한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한 것은 악한 행위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청비와 관계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악으로만 생각하기 어렵다. 문도령의 경우, 자청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지아비로서의 행위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악한 것은 아니므로 선하지 않은 것, 곧 <非악>에 속한다.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렀다고 갈 곳 없는 자청비를 내쫓는 주모할미<sup>23)</sup>나 자청비와의 결혼 경쟁에서 진 뒤 두통, 눈흘김, 악취 등을 만들어내는 서수왕아기 등은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선한 존재도 아니므로 <非선>의 의미 아래 분류된다.

---

22) 김진국 대감이 먼저 자청비의 이름 짓기를 고민하고 열다섯이 되도록 어리광을 받아주며 15세 되던 해에는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 별초당을 만들어 비단클을 걸어주어 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부녀관계를 도외시키고 있지는 않다. 현용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200면 참조.

23) 주모할미는 재차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자청비를 수습해주고 문도령과의 재회를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청비의 조력자로서의 행위행이기는 하지만, 자청비의 행위를 경솔하다고 내쫓는다는 점에서 非善의 인물로서 분류할 수 있다.

자청비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 김진국 대감과의 부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수남을 살려 데리고 온다. 이는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의 가부장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에 선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23을 볼 때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린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청비는 김진국 대감으로부터 종을 죽였다는 이유로 쫓겨났기 때문에 자청비가 정수남을 되살린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청비는 비록 부정을 저버린 아버지이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효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청비는 효라는 윤리적 가치의 측면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정수남을 살린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겁탈하려 한 정수남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청비의 선행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가부장제적 부녀 관계에서의 효라는 선한 가치 실천의 차원을 넘어선다.

자청비는 선하지 않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주도적인 인물이다. 아버지인 김진국 대감과의 관계, 지아비가 되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나 주모할미와의 관계에서도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가부장적 질서의 구현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할 김진국 대감과 문도령, 그리고 주모할미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청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나 사회정치적 의미 층위, 그리고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가 <세경본풀이>의 지배적 의미 층위라면 표층 구조에서 그러한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서사텍스트의 전개가 어떤 의미 체계의 실현이라고 할 때 <세경본풀이>를 지배하는 것은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이며 이는 자청비의 선한 행위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 4. 중세경의 의미

일반적으로 윤리가치는 <선/악>의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로 인식되며 이것의 실현 양상은 선을 긍정하고 악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을 지키기 위해 악은 엄격하게 부정된다. 선을 유지해야 하는 집단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제거한다.

그런데 <세경본풀이>에서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는 악한 자를 징치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악한 자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악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악한 행위의 교정을 위한 것이지 악한 존재 자체를 멸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환생시키는 것, 재차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문도령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 모두 악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행위로 실현되는 윤리가치적 의미는 다른 의미 층위에 균열을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청비의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를 통한 ‘용서’라는 행위는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질서 속 우열 관계를 뒤집는다. 뿐만 아니라 지상적 존재가 천상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천상적 존재도 미치지 못했던 영향력을 지상에 미치고 있다. 여자이면서 중이기까지 한 비천한 존재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우월한 존재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나 사회정치적 의미 층위, 심지어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우열의 위계가 전도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층위의 우열 관계가 전도된다고 하여 그 의미 층위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청비는 자신을 내친 아버지께 시종 순종적이며,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문도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정수남을 환생시켜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에서 실현되는 윤리가치는 악한 것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에 의해 완성되는 세계는 선한 자청비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정수남, 김진국 대감, 문도령들이 공생하는 세계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희생한 자청비 뿐만 아니라 정수남과 문도령까지 농경신으로서의 세경으로 좌정하는 것도 이러한 조화로운 공생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문도령과 정수남의 세경신 좌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의 행위 속에서 문도령이나 정수남을 어떤 악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한 것을 긍정하고 악한 것을 멸하며 선하지 않은 것을 교화해야 하는 인간적인 도덕의 차원보다는 보다 우주적 차원의 질서를 의미한다. 즉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1차원적 양항 대립의 관계를 초월하게 되면 더 이상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멸하며 누가 누구에게 평가받고 벌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청비를 한 여성 개인으로 보면 이러한 행위는 자청비의 입장, 여성의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자청비가 이미 세계를 품어 안은 존재라면 더 이상 손익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 개인 여성으로서 자청비가 세경신이 된 것이 개인적인 의미의 자기self실현이라면 자청비가 중세경이 되고 문도령과 정수남도 함께 세경신이 된다는 것은 자청비 개인의 차원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큰자기Self의 실현이다.<sup>24)</sup>

24) 인간이 스스로를 인간 이외의 자연과 철저하게 상호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려는 과정을 뜻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됨을 넘어서 인간 이외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정체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안 네스는 이를 큰자기Self실현으로 표현한다. 자기를 넓힌다는 것은 확장적인 정체화 과정으로 설명되는데 바, 이는 <세경본풀이>에서 중심인물인 자청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 서사에서 제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모든 존재들이 유기적인 전체 세계 내에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한편희,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94, 343면 참조.

딸보다 종이 귀한 아버지, 좋아한다면 겁탈해도 좋다는 남성,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도 저버리는 남편으로 인해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역으로 부모와 자식, 남성과 여성 간의 가족혈연적 위계와 성적 차별의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청비의 관계 회복의 방식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벌하거나 사회를 뒤엎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하고 용서하는 방식을 통해 인정하며 나아가 온전해 지도록 회복하는 방식이다. <세경본풀이>의 세계는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에 상실된 연관성을 회복시키고 상호관계의 균형을 회복하여 순수한 시작의 상태, 비릇됨의 상태로 되돌려 현실 세계에서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조화롭게 공생<sup>25)</sup>하는 세계이다.

자청비는 지상적 존재이고 열등한 인물이면서도 천상과 지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sup>26)</sup> 천상적 존재들인 하늘 옥황 문곡성이나 문도령은 천상적 존재이면서도 인간 세상인 지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자청비가 오곡 종자를 지상으로 가져오기 전 천상과 지상은 분리되어 있었던 셈이다. 자청비는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가로지름으로써 벽을 허물고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연결한다.

자청비의 행위는 단지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허물고 관계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자청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은 문도령이라

25)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5, 30면.

26) 이런 점에서 ‘자청비’라는 존재는 卑賤體abject라고 할 수 있다. 비천체란 경계선상의 존재이기에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기호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이기에 어떤 영역에서나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인식되는 정체성을 지니고자 하는 어떤 편에서나 또 다른 가치의 존재를 일깨우는 비천체와 같은 존재는 확실한 자기규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자청비의 비지상적이고 동시에 비천상적인 속성 등이 바로 비천체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피비우스 띠로서 몸』, 여이연, 2001, 26면. ; 줄고, 「조선 후기 한문단편소설의 공간의 균열양상과 인물 연구-〈茶母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참조.

는 천상적 존재가 지상의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던 천상적 존재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 문도령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농경의 신으로 좌정케 함으로써 천상과 지상은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천상적 존재가 지상의 인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웅 자청비의 형상화가 아니라 천상과 지상, 우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면 자청비의 上도 下도 아닌 中세경이라는 위상은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주체에게 무엇보다도 걸맞은 위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 면에 치우칠 경우,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에 위치할 때 어느 곳도 편벽되지 않게 바라볼 수 있고 두루 품어 안을 수 있다. 중심이 없으면 좌도 우도, 위도 아래도 없다. 곧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조화를 지향하는 세계관의 반영이다. 하세경에 좌정하는 정수남이라는 인물이 악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양지는 그들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 조화로운 세계는 선과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sup>27)</sup> 그런 점에서 <세경본풀이>의 세계관은 생태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세계관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27) 그러나 여전히 악한 존재는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경본풀이>는 영원한 악의 근절을 기대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리지 않는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되 강한 징벌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악한 인물을 용서함으로써 선한 인물로 재생시킨다.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되살아남으로써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자청비가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대지 모신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 5. 결론

본고는 농경신인 세경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가 왜 중세경으로 좌정하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인공 자청비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자청비는 인간으로서 지상적 존재이고 여성이며 집안에서는 딸이자 아내이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서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은 자청비이다. 천상적 존재인 하늘 옥황 문곡성이나 문도령, 선녀들, 가부장제 가족혈연적 관계에서 우위를 지니는 아버지와 문도령은 서사의 전개 상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자청비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윤리가치적 의미 층위의 맥락이다. 즉 생물물질적이거나 가족혈연적 질서 구조에서 열등한 자청비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인물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선이라는 윤리적 가치의 실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자청비에 의해 실현되는 윤리적 가치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청비의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용서’에 있다. 용서는 악한 존재이든 선하지 않은 존재이든지 간에 타자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필연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한 존재를 벌하고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존재들까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타자를 용서하는 것은 심지어 악한 것도 세계의 일부로 인정하는 조화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간다.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기존의 것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재생되는 것이다. 지상 세계와 분리되었던 천상적 존재인 하늘 옥황 문곡성과 문도령은 인간에게 오곡을 전해주고 농경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세계 구성 원으로서 재정립된다. 악한 존재였던 정수남 역시 풍요를 관장하는 농경·목축의 신으로서 좌정하게 된다.

천상적인 존재와 지상적인 존재, 귀한 존재와 천한 존재, 심지어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천상과 지상’, ‘귀와 천’, ‘선과 악’같은 의미 층위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대립적인 자질들이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천상적 질서 또는 존귀함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계 구성 요소들의 조화를 통한 균형감이다. <세경본풀이>의 조화로운 세계 구현의 중심에 ‘中’세경 자청비가 있다.

## 참고문헌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세경본풀이>,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66~190면.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 김화경, 「세경 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Vol.8, No.3, 일지사, 198, 56~78면.
- 신덕룡, 「전통적 자연관 연구-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 신태수, 「<세경본풀이>의 世界觀的 基底와 談論 構造」, 『語文學』 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285~310면.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韓國言語文學』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면.
-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199~229면.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韓國民俗學』 25, 민속학회, 1993, 267~300면.
- \_\_\_\_\_,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식」,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147~172면.

- 李鍾殷·尹柱弼·沈慶昊·鄭珉·朴永浩·李起炫, 『韓國文學에 나타난 韓國人的 自然觀 研究』, 『韓國學論集』 제3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 임재해, 「고대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진화론적 자연관」, 『민속연구』 제8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8, 243~277면.
- 장지훈,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8·59호, 1999, 75~104면.
- 정인혁, 「조선후기 한문단편소설의 공간의 균열양상과 인물 연구-〈茶母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47~272면.
-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181~199면.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집, 한중인문학회, 2007, 363~394면.
- 한면희,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94, 327~356면.
- 송효섭, 『설화의 이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_\_\_\_\_,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나카자와 신이치中泥新一,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5, 30면.
-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뫼비우스 띠로서 몸』, 여이연, 2001.
- 클리퍼드 기어츠,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 뤽 브노와, 박지구 역, 『기호·상징·신화』,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world view of *Segyong-bonpuri*

Jung, In-hyok

*Segyong-Bonpuri* is a Narrative myths that describe the origin and history of Segyong-sin, the god of agriculture in Korea. Jacheongbi, the heroine of *Segyong-Bonpuri* become a middle-Segyong-sin(中世經) out of three Segyong-sin, high, middle, and low-Segyong-sin.

This thesis purpose to study why the heroine, Jacheongbi become a middle-Segyong-sin, what it means, and go further, what is the world view of *Segyong-Bonpuri*.

The heroine, Jacheongbi is the existence which physically and socially is inferior. But, Jacheongbi is the main character which is lead solves a problem from narrative of *Segyong-Bonpuri*. She could lead other people who have predominant position, because she practices with an ethical value.

We must pay attention in the method how she practices an ethical value. Her ethical value does not recognize the good and evil with relationship of dichotomy opposition. Jacheongbi forgives them with solves a problem. The forgiveness which is genuine becomes accomplished, when we recognize the evil person and not-good person as the other. Also the self-sacrifice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that we do not punish the evil person but recognize the evil as the element which composes the world.

In the view of the world of *Segyong-Bonpuri*, 'heaven and

earth', 'high and low', 'good and evil' does not seem as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It is important that is not the ideology like as order of heaven, high and noble, but the balance feeling which leads the harmony of the elements which compose the world.

There is Jacheongbi on the center of embodiment the harmonious world in *Segyeong-bonpuri*.

Key words : *Segyeong-bonpuri*, Jacheongbi, ethical value. the view of the world, harmonious world, forgiveness